

2020년 1월 3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연준의 신중한 경기 전망 속 혼조 마감 연준, 초과지급준비금리(IOER) 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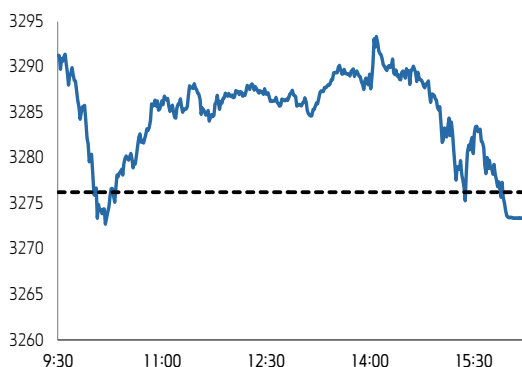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①기업실적 ②WHO 회의 ③FOMC

미 증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를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하락 전환. 그러나 대형 기술주가 양호한 실적에 기반 상승을 이어가자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FOMC 에서 연준은 경기에 신중한 전망을 발표하고 초과지급준비금리를 인상. 여기에 파월 의장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자 상승분 반납(다우 +0.04%, 나스닥 +0.06%, S&P500 -0.09%, 러셀 2000 -0.55%)

미 증시는 ①기업실적 ②WHO 회의 ③FOMC 결과로 변화. 먼저 기업실적인데 애플(+2.09%)은 연말 쇼핑 시즌 아이폰과 웨어러블 판매 호조 영향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낙관적인 매출 전망 제시한 데 힘입어 상승.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페이스북(+2.50%)도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는 등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미 증시는 상승. 물론 자일링스(-10.70%), 실리콘 랩(-13.28%), AMD(-5.98%) 등 반도체 관련주는 부진한 실적과 신중한 향후 전망을 발표하자 급락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를 보인 점도 특징.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30 일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주목할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에 해당되는지 논의한다는 점. 만약 비상사태 선포가 된다면 관련 우려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 그런 가운데 WHO 는 여전히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하자 관련 우려는 일부 완화.

미 연준은 FOMC 를 통해 레포 운영을 '최소' 4 월까지 운영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명. 그러나 가계지출에 대해 '강한 증가'에서 '온건한 증가'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중한 경기 전망을 표명. 더불어 지난해 5 월 1 일 이후 인하하던 초과 지급준비금리를 5bp 인상하자 상승분 반납. 파월 연준의장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가운데 적극적인 레포 운영의 역할은 줄어 들었기 때문에 4 월까지 운영을 할 것이라고 언급. 대체로 과거 보다 경기에 대한 신중한 발언을 함. 신중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거시경제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다고 주장. 더 나아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해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다고 주장. 이후 금융주가 하락 전환하는 등 주가지수 상승분이 일부 반납하고, 10 년물 국채금리는 1.6% 이하로 하락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85.28	+0.39	홍콩항셱	27,160.63	-2.82
KOSDAQ	670.18	+0.82	영국	7,483.57	+0.04
DOW	28,734.45	+0.04	독일	13,345.00	+0.16
NASDAQ	9,275.16	+0.06	프랑스	5,954.89	+0.49
S&P 500	3,273.40	-0.09	스페인	9,546.70	+0.66
상하이종합	2,976.53		휴장	931.21	-0.24
일본	23,379.40	+0.71	이탈리아	24,164.73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3%

애플(+2.09%)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MS(+1.56%), 페이스북(+2.50%)은 기대속 장중 상승했다. 그러나 MS는 시간 외로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2% 상승중이나 페이스북은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시간 외로 7% 내외 급락 중이다. L브랜드(+12.94%)는 주력 제품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테슬라(+2.49%)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후 7% 상승 중이다. 한편, 연준의 초과기준율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JP모건(-0.15%), BOA(-0.69%) 등 금융주는 하락 전환했다.

자일링스(-10.70%)와 AMD(-5.98%)는 실적발표 후 신중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급락했다. 실리콘 랩(-13.28%)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으며, 이 여파로 마이크론(-2.07%), 인텔(-1.4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99%) 등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영향으로 1.83% 하락했다. AT&T(-3.97%)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부문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여전히 경쟁 심화 우려가 높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넷플릭스(-1.54%), 디즈니(-1.67%), 콰이크스트(-1.63%)도 동반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0%	대형 가치주 ETF(IVE)	-0.46%
에너지섹터 ETF(OIH)	-1.25%	중형 가치주 ETF(IWS)	-0.36%
소매업체 ETF(XRT)	-0.22%	소형 가치주 ETF(IWN)	-0.68%
금융섹터 ETF(XLF)	-0.17%	대형 성장주 ETF(VUG)	+0.22%
기술섹터 ETF(XLK)	+0.26%	중형 성장주 ETF(IWP)	-0.3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7%	소형 성장주 ETF(IWO)	-0.41%
인터넷업체 ETF(FDN)	-0.15%	배당주 ETF(DVY)	-0.37%
리츠업체 ETF(XLRE)	-0.5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9%
주택건설업체 ETF(XHB)	-0.9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7%
바이오섹터 ETF(IBB)	-0.07%	미국 국채 ETF(IEF)	+0.48%
헬스케어 ETF(XLV)	-0.27%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87%	물가연동채 ETF(TIP)	+0.36%
반도체 ETF(SMH)	-1.52%	Long/short ETF(BTAL)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5.12	-1.07%	-4.87%	-8.44%
소재	372.35	+0.36%	-1.60%	-2.77%
산업재	699.57	+0.55%	-0.06%	+1.77%
경기소비재	984.65	-0.06%	-1.82%	-0.02%
필수소비재	648.73	-0.52%	-1.62%	+0.33%
헬스케어	1,186.54	-0.28%	-2.71%	+0.16%
금융	501.09	-0.16%	-2.17%	-1.73%
IT	1,705.61	+0.21%	-0.29%	+6.26%
커뮤니케이션	186.67	-0.43%	-2.33%	+2.97%
유틸리티	348.53	+0.30%	+1.62%	+6.69%
부동산	246.33	-0.63%	-0.02%	+3.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921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05pt 상승한 294.2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8.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장 중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등 관련 우려가 여전히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투자심리 위축으로 미 증시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점은 부담이다. 물론 미 증시 마감 후 애플 부품주인 퀴보나 시러스로직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로 5~9%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

자일링스, AMD, 실리콘 랩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업종이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하며 10% 내외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3%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연준이 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나, 가계지출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평가에 대해 신중해진 점도 부담이다. 더불어 초과지급준비금리를 5bp 인상한 점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준의 FOMC 이후 금융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종목별 특징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부진

12 월 미국 잠정 주택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4.9% 감소해 예상(mom +0.4%)를 하회했다.

1 월 스테이트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9.5) 보다 낮은 76.5 로 발표되며 기관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 졌다. 북미 지역은 3.4p 낮아진 68.2, 유럽은 3.9p 낮아진 105.5 로 발표되었으나, 아시아는 4.8p 상승한 93.9 로 발표되었다. 이를 감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아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FOMC 이후 미 국채금리 하락폭 확대

국제유가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한편, EIA 는 지난 주 원유재고가 48 만 배럴 증가 전망보다 큰 350 만 배럴 증가하고, 가솔린도 12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OPEC 이 추가 감산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며 하락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와 엔화는 연준이 경기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발표하고 파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유럽의회가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비준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잠정주택판매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 더불어 연준이 경기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발표하고, 파월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중 하나였다. 한편, 연준은 초과지급준비금리를 5bp 인상했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으나, 시간 외로 연준의 경기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되자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여전히 영향을 주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휴장이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33	-0.28	-6.01	Dollar Index	98.097	+0.08	+0.58
브렌트유	59.81	+0.50	-5.38	EUR/USD	1.1005	-0.15	-0.79
금	1,576.00	+0.01	+0.84	USD/JPY	109.04	-0.10	-0.73
은	17.487	+0.17	-1.91	GBP/USD	1.3012	-0.12	-0.99
알루미늄	1,737.00	-0.86	-4.09	USD/CHF	0.9737	+0.06	+0.61
전기동	5,641.00	-1.09	-7.62	AUD/USD	0.6748	-0.21	-1.40
아연	2,211.00	-0.85	-7.72	USD/CAD	1.3206	+0.39	+0.54
옥수수	384.25	-0.58	-1.16	USD/BRL	4.226	+0.86	+1.08
밀	562.25	-1.32	-2.68	USD/CNH	6.9693	+0.05	+0.85
대두	893.00	-0.22	-2.27	USD/KRW	1177.20	+0.04	+1.65
커피	102.05	-2.86	-8.06	USD/KRW NDF1M	1178.96	+0.31	+1.2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77	-7.91	-19.20	스페인	0.297	-1.60	-11.30
한국	1.575	-2.60	-18.10	포르투갈	0.308	-2.70	-14.20
일본	-0.039	0.00	-4.10	그리스	1.155	-2.00	-20.20
독일	-0.377	-3.60	-11.70	이탈리아	0.951	-7.90	-39.50